



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 소식

7월 긍정의 힘을 주는 성경 속의 한 줄

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
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
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

- 시편 103편 17~18절 말씀

《 안 내 말 씀 》

노인학대중 ‘방임’에 관한 안내

노인학대 유형중 방임이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비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를 말합니다. 특히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드시지 않는 경우 이는 모두 방임에 해당하오니 이부분을 숙지하시어 어르신들께서 필요에 따라 적합한 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호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 안내

인터넷 주소창에 www.ygpwelfare.org 를 입력하시거나 네이버,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‘여의도굿피플복지센터’를 검색하시면 요양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. 평소 어르신 생활 모습이나 행사 시 사진, 프로그램 일정, 소식지 등을 보실 수 있으며 필요 시 안내 사항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병원진료 및 차량이용 안내

본원에 입소하여 계신 어르신의 병원진료는 보호자님 동행 하에 다녀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앰블런스 차량은 호스피스 소유 차량으로 요양원에서는 응급 상황 시 병원이송 용도로만 운행이 가능하오니 보호자님께서도 이점 양지하셔서 병원 진료 및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





방문객 유의사항

방문하신 분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어르신께 불편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1. 음식물을 반입음식물 반입금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.

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는 유통기한 미표기 제품을 제공 또는 보관할 수 없어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. **면회 시 보호자님과 함께 드실 1회 분량의 음식물 이외의 모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, 특히 떡, 방울토마토, 포도등과 같이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은 반입을 절대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**

2. 외출 시 너무 늦은 귀원은 타 어르신의 휴식에 방해가 되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

주요행사 안내

일시	내용	시간 · 장소
7월 18일 화요일	하모니합주단 예배특송	10:30~11:30 / 지하 대성전
7월 20일 목요일	7월 어르신 생신잔치	14:30~15:30 / 1층 사랑홀
7월 24일 월요일	이미용서비스-의료선교회	10:30~14:30 / 프로그램실

※ 행사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

전화번호 안내

구분	간호팀	사무행정팀	복지사업팀	영양지원팀	재활관리팀
담당자	박미옥 간호사	백선희 사무원	김미선 팀장	이남희 팀장	이재석 팀장
번호	934-5750	934-5731	934-5705	934-5730	934-5712

※ 문의사항이 있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6월에 진행된 행사

6월 3일 <영산수련원 산책 및 나들이>



지난 5월 나들이에 이어 6월에도 산책 및 나들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. 3일에는 3789부대 군인들의 도움으로 영산수련원의 잘 조성된 정원을 안전하게 산책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셨습니다.

6월 4일 <이미용서비스>



4일에는 주사랑미용봉사팀에서 나오셔서 어르신들의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셨습니다. 무더운 여름 팔금하게 머리를 자르시니 한결 시원해진 느낌과 기분전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

6월 10일 <The Flat 문화공연>



10일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해주시는 문화선교 The Flat 연주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. 아름다운 악기의 선율과 고운 노랫소리의 조화를 들으며 공연을 감상하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매우 감동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

6월 22일 <어르신 생신잔치>



22일에는 이 달 생신을 맞으신 중 3명의 어르신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생신선물과 카드를 증정하며 생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.